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해 설 사**	*한석호*
해 설 주 제	*천연기념물 비자나무를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하여 알아본다.*		
대상 및 인원	*일반인대상 20명*	**소 요 시 간**	*20분*

2. 세부 시나리오

앞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무의 잎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주목나무 잎과 비슷하며,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아몬드처럼 생겼답니다. 또 한자 아닐비자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여유도/의견정리) 맞습니다. 이 나무를 비자나무라고 부르는데 내장산국립공원내의 비자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자나무가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까요? (대답유도/의견정리) 그 이유는 이곳이 비자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숲으로 식물분포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려 8,000여 그루나 군락을 이루고 있고 우리 백양골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럼 이제 비자나무 향을 맡아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비자나무 특유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가을이 되면 이처럼 상쾌한 비자향이 온 산을 뒤덮는 답니다.

비자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각종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피톤치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향기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숲에 오면 느껴지는 상쾌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자향과 함께 피톤치드를 생각하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 마시면서 상쾌함을 느껴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비자나무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활용) 열매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아몬드나 땅콩처럼 생긴 씨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비자나무 열매는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도 있어서 약이 귀했던 옛날에는 구충제로 먹었습니다.

비자나무의 목재 역시 귀하게 쓰였는데요, 나이테가 촘촘해 마치 나이테가 없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성장이 더딘 만큼 재질이 치밀하면서도 연하고 좋아 바둑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또 습기에도 잘 견뎌 배나 관을 만들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나무의 황제' 라 불립니다.

저와 함께 한 해설은 여기까지 인데요, 비자나무를 비롯하여 이곳의 수많은 나무들이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아늑한 자연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오늘 탐방 하시는 이 시간만큼은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사) 숲 연구소≫ 홈페이지(www.ecoedu.net)
≪주제별 생태놀이≫ p54, p253, 황경택 글, 그림 (황소걸음)